

친애하는 여성대의원동지여러분!

오는 연말에 있을 대통령선거의 우리당 후보와 대표최고위원 그리고 최고위원을 자유 경선을 통해 선출하는 역사적인 금번 전당대회의 대의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천2백만 한국 여성들을 대표하는 여성정치지도자로서 한국 정치사에 뛰어난 업적을 남길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

지난 87년 대통령선거, 13대 총선, 두 차례의 지자체 선거 그리고 이번 14대 총선과정에서 여러분께서 우리 당에 보여주신 눈물겨운 노력을 묵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당의 진정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낳고 길러보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 따뜻한 애정이 있고, 굶은 일을 마다하지 않던 헌신성, 지조와 정직을 생명처럼 아는 맑고 깨끗함, 바로 제가 본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에게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당이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하여 민주주의의 실현과 평화적 통일, 그리고 오랫동안 차별받아온 여성의 한을 풀어야 한다는 민족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계적으로는 물론이며 아시아권에서도 가장 낙후된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당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 모든 당직의 20%를 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는 내용의 당헌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이 과연 민주당이 여성을 위한 정당으로 그 안을 채택할 것인가 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안은 오늘 현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여성당원들도 그동안 당을 위해 묵묵히 헌신만 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을 위하는 정당, 여성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는 지구당별로 여성대의원이 단 한명이지만 앞으로는 두 명, 세 명 나아가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 몫으로 50% 까지 여성들이 모든 당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선거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적어도 20% 이상이 공천을 받아 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급한 것은 금번 최고위원 선출에서 현재까지의 20%의 여성최고위원을 어떻게 유지하는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우리 여성대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정가에 파다하게 퍼져있는 '여성이 여성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헛된 인식을 이번에는 말로 불식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300여명의 여성대의원은 전적으로 여성후보를 지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금번 경선에 나선 최고위원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가 정치경륜이 높은 분들로서 최고위원으로서의 덕망을 고루 갖춘 분들입니다. 그러나 금년말에 있을 대선에서 유권자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유권자들이 우리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핵심부터 실무부서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고르게 포진되어 여성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년동안 의정활동과 중앙당의 과제수행에 치중한 나머지 여러분과 좀더 가까이 하지 못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13대 국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급 선거에서 여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성정치지도자 양성에 힘을 다할뿐만 아니라 여성의 의회진출을 위한 제도개혁에도 주력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짐합니다.

푸르름과 생명의 계절 5월에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길 빌며, 전당대회에서 뉘 때까지 가내에 평안과 가족모두가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